

제4차 Asian YGEC를 마치고 - 행사문과 -

박준범*

이번 YGEC가 큰 차질 없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 행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행사부분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를 아무리 꼼꼼히 하여도, 직전에 사전 연습(rehearsal)이 있어야 한다. 장연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근 1년 반 가까이 준비를 하여서 빠짐없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실제 상황 연습은 하지 않았었다. 막상 뚜껑을 열고 학회를 시작하니,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던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발표자의 발표자료가 다양해지면서 급작스럽게 발표자료를 변경한다던가, 자료의 컴퓨터 호환성(compatibility)이 확보되지 않아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사전연습을 통하여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물론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보기가 좋은 것 같다. 준비하는 사람이 당황하고, 표정이 굳어지고, 서로 큰 소리로 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 준비는 꼼꼼히, 연습은 실제같이,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Don't Panic!)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겠다. 특히, 진행요원과 조직위원들은 표정을 밝게 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 정회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조교수

오는 도움을 받는 기쁨은 오래 남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YGEC의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잘 아는 바와 같이 YGEC란 바로 Young Geotechnical Engineers Conference의 약자이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의 나이는 대략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필자는 올해로 우리나라로 40이 되어 이 대목에서 약간 쪼림). 따라서 이번 학술발표회는 다른 일반 학회와는 내용과 진행 면에서 나름대로 차별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반 학회와 비교하여, 특별히 Young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 대목에서 과연 젊은 지반공학자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여 보았다. 도전정신, 창의력, 자유로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현장을 누비면서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마음...등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학술발표회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이보다는 너무 점잖은(그야말로 쪼지 않은) 학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논문의 주제가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논문을 YGEC에서는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발표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즉, 일반 기성 학회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 논문을 평가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발표자들이 발표전의 social program등을 통하여

서로 잘 알고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잘 알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미 학술 발표회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기성학술회의도 ice breaker 파티가 학술발표 전야제로 있다. 이는 그만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YGEC 행사에서 이러한 배려가 약간은 미흡하였던 것 같다. 최근의 국제학술회의의 추세는 격식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지식정보의 교환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된다. 즉, 학술회의에 나와서 그저 논문하나 격식을 갖추어 발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의 연구분야를 알리고, 토론하여, 서로를 알게되어, 지속적인(sustainable) 연구교류를 유도하는 것이 학회의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리 YGEC를 통하여도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참가자들간에 상호연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YGEC에서는 첫째 날의 국악공연, 둘째 날의 인사동방문, 셋째 날의 현장방문(난지도매립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과 farewell party를 통하여 서로 많이 친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유창한 영어로 welcome party의 사회를 맡아 좌중을 사로잡았던 건기원의 정문경박사, 그리고 연일 외국참가자들과 같이 현장을 누비고, 술 2-3차를 불사하였던 인덕대학의 최준성 교수와 건기원의 김창용박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아마 외국인 참가자들이 귀국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여도,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를 알고, 친하게 되어 상호연구를 교류하는 것이 바로 YGEC원래의 시행 취지라 생각된다.

셋째, 국내의 참가자들이 많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홍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니만큼 보다 많은 호응과 관심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참가비(20만원)와 시간, 영어 등의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의 순수 참

가자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것은 나 개인의 생각이지만, 외국의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선심을 베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루 세끼의 식사와 (일부는) 항공권과 숙박비, 공항영접/배웅, 등 어떤 학회에서 보지 못하였던 환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러한 비용을 적절히 배분한다면, 보다 많은 국내 참가를 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우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때, YGEC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국제학회의 개최역량을 우리가 스스로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 볼 때, 내년에 우리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경기에 우리가 구경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 집 잔치에 우리가 빠진 꼴이 되는 것이다.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다른 열 가지의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자신의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YGEC가 서울대의 호암생활관에서 치러져서, 내가 행사담당을 맡게 되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행사를 총괄지휘하면서 독려하여주신 장연수 교수님, 행사기획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에스코 컨설턴트의 김승렬사장님과 CAD그림의 대가 김성훈씨, 호텔리어의 모범을 보여준 호암생활관의 신장식 지배인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처음에 행사를 맡아서 혼자 고생하다가 아쉽게도 인도로 파견근무를 간 김정환 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김 박사는 이번 YGEC가 행사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밑바탕을 그려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 박사의 뒤를 이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불철주야 뛰 서울대 지반연구실의 권오정 군도 빠뜨릴 수 없다. 권오정군의 성실함과 친근함은 모든 참석자들이 기억할 것이다. 또, 바쁜 중에도 행사진행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던 서울대 지반공학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